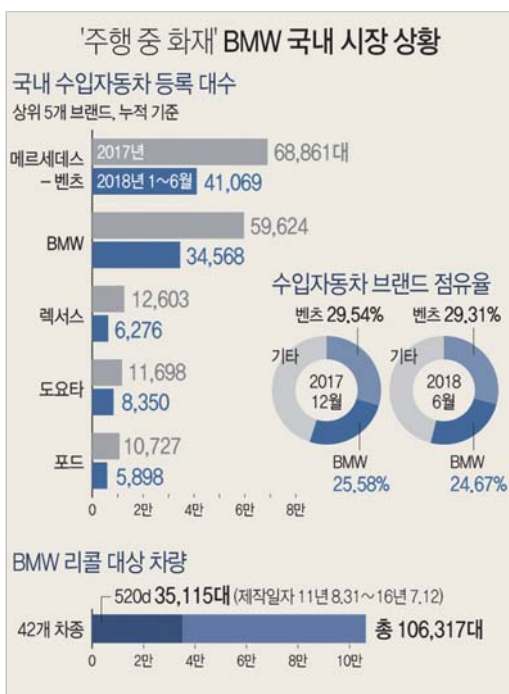


'BMW 공포' 갈수록 확산 '자동차 게이트'로 번지나

긴급 안전진단이 본격화되면서 수그러질 것으로 보였던 BMW 디젤 모델 주행 중 화재 사태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급기야 최근 BMW그룹 임원이 직접 사고 원인에 대해 해명하고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도 사과하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화재 원인을 두고 의혹이 높아지고 있으며, 집단 소송단 인원도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특히 고객들은 BMW그룹이 화재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시간을 끌며 미적거리다 사태를 키웠다며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



◇BMW 원인 해명 불구 고객 울분
목포에서도 주행 중인 BMW 디젤차량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운전자는 물론 지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차량화재가 건물이나 터널 등에서 발생할 경우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이번 화재가 난 차량은 국토교통부의 권고대로 3일 전 안전점검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정부와 BMW사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3일 기준 1만5,337대가 긴급안전진단을 마쳤다. 하지만 이번 목포 화재 발생 차량이 불과 3일 전 안전점검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전점검 자체에 대해서도 불신이 일고 있다. 특히 그동안 일부 자동차 전문가들이 안전점검 방식과 대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목포 차량화재 이후 운전자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목포서 안전점검받은 차 주행 중 화재 '알고도 묵인 했었나' 뒷북 리콜 논란 주차기피·가격하락 속 차주 피해 호소

최근 목포시 옥암동 대형마트 인근 도로에서 김모(54)씨가 운전하던 BMW 520d (2014년식) 차량에 불이 났다. 국토부는 이날까지 전국 BMW 차량 화재 사고를 32건으로 파악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은 이번 목포 사례가 처음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월 3건을 시작으로 2월 2건·3월 1건·4월 5건·5월 5건에서 7월달 들어 12건으로 급증했다. 이달에는 지난 4일까지 4건이 발생하는 등 하루 1대꼴로 BMW 차량 화재가 일어나고 있다. 이 가운데 520d 차종은 19건으로 집계됐다. BMW코리아는 2011년에서 2016년 사이 생산된 디젤 차량에서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42개 차종 10만6,000여대의 리콜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BMW는 리콜 조치가 내려진 차량 전체에 대해 디젤 엔진의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를 교체하기로 합의했다. 긴급 안전진단을 통해 정비가 급한 차량부터 먼저 부품을 교체하기로 한 것이다. 긴급 안전진단은 엔진에 대한 내시경 검사를 통해 EGR 부품에 화재 위험이 있는지 보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늘어나는 집단소송 참여자
시민들 사이에 'BMW 차량은 언제든 불이 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며 'BMW 공포'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특히 일부 기계식 타워주차장에서는 BMW 제작 차량에 대해 디젤과 휘발유 차량 구분없이 주차 자체를 요청하면서 BMW운전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BMW 차주들은 화재 위험과 함께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는 등 이중, 삼중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화재가 주로 발생한 BMW 520d와 같은 등급이면서 휘발유 차량인 528i 차종을 소유한 A씨는 "화재가 난 디젤차량과 차종이 다른데도, 여기저기서 괜찮냐는 질문을 수십번이나 들었다"고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이와함께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국소비자협회는 아예 차량 및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송지원단을 꾸려 BMW 동호회 회원 100여명과 공동소송을 진행 중이며, 오는 13일부터 2주간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한 뒤 2차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BMW디젤 차량들에 대한 운행자제 권고를 내렸으며, 민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서미애 기자

기아자동차, 2019년형 스토닉 출시

경제성·주행 성능 높은 스토닉 1.0 터보 선포



기아자동차(www.kia.com)가 고객 선호 안전, 편의 사양 적용해 고객 만족감 높은 '2019년형 스토닉'을 출시했다. 기아차는 지난해 7월 재빠르다는 뜻의 스피디(SPEEDY)와 으뜸음을 뜻하는 토닉(TONIC)의 합성어로 '날렵한 이미지의 소형SUV 리더'라는 의미의 스토닉(STONIC) 디젤 모델을 출시한 후 그 해 11월 가솔린 모델을 선보였고 이번에 1.0 터보 모델을 출시해 고객 선택폭을 넓혔다. 특히 기아차는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과 경제성이 높은 차량을 원하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스토닉 가솔린 1.0 터보 모델을 처음 선보였다. 스토닉 가솔린 1.0 터보 모델은 1.0 T-GDI 가솔린 엔진과 7단 DCT가 탑재돼 최고 출력 120마력(PS), 최대토크 17.5kgf·m의 동력 성능을 제공하고 17인치 타이어 기준 13.5km/l의 복합연비를 달성해 경제성을 확보했다. 또한 기아차는 2019년형 스토닉 1.0 터보,

기아자동차가 고객 선호 안전, 편의 사양 적용해 고객 만족감 높은 2019년형 스토닉을 출시했다. 1.4 가솔린, 1.6 디젤 모델의 프레스티지 트림에 고객 선호 사양인 1열 통풍시트를 기본 적용해 무더운 여름 운전자 및 동승자가 시원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기아차는 2019년형 스토닉에 드라이브와이즈 패키지를 통해 차선 이탈 방지 보조(LKA)를 장착할 수 있어 주행 안전성을 높였고 HD DMB를 적용해 편의성을 강화했다. 기아차는 2019년형 스토닉의 가격을 ▲1.0 가솔린 터보 모델 트랜디 트림 1,914만원, 프레스티지 2,135만원 ▲1.4 가솔린 모델 디럭스 트림 1,625만원, 트랜디 트림 1,801만원, 프레스티지 2,022만원 ▲1.6 디젤 모델 트랜디 트림 2,037만원, 프레스티지 2,258만원으로 책정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2019년형 스토닉은 가격 경쟁력은 유지하면서 고객 선호 높은 편의, 안전 사양을 적용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며 "여기에 더해 1.0 터보 모델을 새롭게 선보여 20~30대 젊은 고객들의 선택폭이 넓어져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기아차, 그린 라이트 아프리카서 두 번째 결실

모잠비크·말라위 중등학교 설립 5년만에 지역사회 이양
찾아가는 교육·보건 서비스 수익 창출 자립사업도 넘겨줘



기아차는 글로벌 사회공헌사업 '그린라이트 프로젝트'(GLP)의 하나로 아프리카 빈곤 지역에 건립한 자립형 모델을 지역사회에 이양했다고 8일 밝혔다. 기아차는 그린라이트 프로젝트의 두 번째 사업으로 2013년 모잠비크 자발라와 말라위 릴롱게 지역에 중등학교를 세웠다. 지난 5년간 글로벌 비정부기구(NGO)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모잠비크), 사단법인 기아대책(말라위)과 협력해 중학교를 운영하면서 ▲찾아가는 교육·보건 서비스 ▲수익 창출 가능한 자립사업 등을 지원했다. 두 학교가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한 것이다. 모잠비크의 경우 스쿨버스와 이동보건의 차량 등 3대의 차량을 지원해 10개 마을을 지역 주민에게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리적으로 멀어 교류가 없던 학교 간 체육 활동과 문화 체험을 보조했다. 또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이자 소독을 제공하고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소매저축·대부사업을 운영했다.

기아자동차는 글로벌 사회공헌사업 '그린라이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빈곤지역에 건립한 자립형 모델의 지역사회 이양을 완료했다. 기아차 '그린라이트 프로젝트' 두 번째 사업으로 2013년 모잠비크 자발라와 말라위 릴롱게 지역에 중등학교를 세웠다. 말라위에서는 봉고 트럭 1대를 교육용으로 개조해 인근 3개 마을 미취학 아동을 찾아가 영어·수학·과학 등을 가르치고, 방앗간 운영·제빵사업·학교매점 운영 등으로 경제적 자립을 지원했다. 이번에 이양된 중학교와 찾아가는 교육·보건 서비스, 자립사업 등은 앞으로 모두 현지 주민들에 의해 운영되며 NGO와 기아차가 지속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자동차 기업으로서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개선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기업의 모습을 꾸준히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아차는 지난해 탄자니아 중학교와 말라위 보건센터를 처음으로 지역사회에 이양한 바 있다. 그린라이트 프로젝트는 소외계층에 물질적 지원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들이 자립하도록 기반을 마련해주는 데 초점을 맞춘 사업이다. 현재 탄자니아와 케냐, 우간다, 에티오피아, 르완다, 가나 등 6개국 7개 지역에서 중학교, 보건센터, 직업훈련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다. 기아차는 지난달 28일부터 열흘간 에티오피아 그린라이트 직업훈련센터에서 자동차 교육, 인근 초등학교 급식소 건축 등 임직원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서미애 기자

정보가 하면 다릅니다.

경영철학

전직원이 공감하는 투명경영
사업운영관리를 통한 청도경영
재무안전성에 따른 무차입 경영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
이익공유를 위한 성과급 지급

사내복지

자녀의 학자금 지원
무이자 주택자금 지원
개인능력 향상 교육비 지원
쾌적한 업무 환경
회원권을 활용한 문화혜택

점보의
장점

사업현황

미래지향적 연구개발
산학협력을 통한 사업화
공모전을 통한 창의적 사고 확장
정기적인 공감 워크샵

미래비전

구준한 매출 향상 및 이윤 창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미래를 함께할 젊은 인재 육성
현장 적용형 사업아이템 다각화

(주)정보산업

광주광역시 북구 하남대로 775번길 9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성산길 36-5
TEL 062)717-7493 FAX 062)717-7497
H.P http://www.jbwindow.net

단일 알루미늄 창호

일반사단연재와 아존 및 폴리머이드를 적용한 상중 열차단구조로 단열성이 우수한 제품

- 자연 친화적 에너지 효율/고기밀 단일 인종
- 녹색기술인증을 통한 제품 검증
- 정부조달 우수제품 지정
- 일반제품보다 단열성능 우수
- 알루미늄 프레임 장변 확장설계를 통해 내구성 우수
- 공장에서 일체화된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현장 작업 감소 및 시공성 향상
- 유리 규격에 따라 기본적으로 조립이 가능한 폴리머이드 단열재 사용으로, 열손실 방지
- 외기압도 전압을 차단하여 결로 방지 우수 및 유지관리 편리

구분	커튼월 JBJ-CAW-01	커튼월 JBJ-CAW-02	커튼월 JBJ-CAW-04	프로젝트 JBJ-AWP-J-01	프로젝트 JBJ-AWP-J-04	프로젝트 JBJ-AWP-J-05	고정창 JBJ-AFX-01
열관류율	1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기밀성	1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단일 복합 창호

TECHNOLOGY

에너지 효율을 제로 개발

- 과학적인 프레임 설계 및 에너지성능 분석을 통한 효율을
- 창호제품생산 (Simulation program: window7.2, therm 7.2)

DESIGN

수려한 내부 목재무늬 연출

- 자연친화적인 원목은 광의 장감표현으로 다양한 분위기 연출.
- 원목무늬 UV전사코팅으로 습기로 인한 변형, 변색 없음.

실외

유리

실내

알루미늄

폴리머이드

Maple

Brown

Light Brown

Oak

Beige

Walnut

구분	커튼월 JBJ-CAW-03	프로젝트 JBJ-PJ-03	이종미시거창 JBJ-SSL-01	이종중연창 JBJ-SSL-03A	이종중연창 JBJ-SSL-04
열관류율	1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기밀성	1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